제587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0년7월30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조선근

우간다 · 수단
단기선교 8월3일 출발

우간다팀와 수단팀이 단기선교를 위해 8월3일 각각 출국할 예정이다. 우간다팀은 황의만 장로(단장)와 류병희 목사(지도) 외 15명이고 수단 단기선교팀은 전홍렬 장로(단장)와 김인식 목사(지도) 외 17명이 떠날 예정이다. 이들을 위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헌신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정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춘천소년원(신촌중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실시되는데, 이를 위하여 교사로 섬길 헌신된 일꾼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 :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
인원 : 최소한 15명 이상
문의 : 강만호 집사(전화번호는 011-707-2122)

기도원 묘지 이장 공고
교회방침에 따라 10월까지

충현기도원에 소재한(경기 광주 대쌍령리 산9-1) 묘지(墓地)의 유족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고, 묘를 고인의 연고지 또는 충현동산으로 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이장 대상묘 : 충현기도원 내의 묘 전체(약170여기)
②이 장 기 한 : 2000년도 10월까지
③이 장 신 고 : 충현동산과 교회사무국에 반드시 신고하실 것
④이 장 문 의 : 충현동산은 031-764-9617, 사무국은 구내전화 406번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기간 : 8월6일(1-4교구) / 8월13일(5-8교구)
8월20일(9-12교구) / 8월27일(13-17교구)
시간 :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장소 : 교육관 1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 2000년 사업계획, 시산표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통장, 영수증철

외국인 근로자 수련회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외국인선교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름수련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는 8개국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할 예정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주제 : 예수를 알자 / 일시 : 8월 1일-3일
장소 : 충현기도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제안(1)

〈주간충현〉을 통해 주일 설교 미리 묵상하기

충현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는지 의문스럽다. 만일 말씀에 대한 경외함 없이 예배 자체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즘 신령한 예배를 위한 5대 캠페인이 실시중인데,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철저한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충현의 성도들은 주간충현을 통해서 한 주간 전에 미리 나가는 주일 설교를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란다. 각자가 말씀에 대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하늘의 은혜가 빗줄기처럼 임하리라고 확신하다.

금요 집회(8월 4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집회 시간에는 구원의 수단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죄가 원심력과 같은 힘으로 작용하여 인간을 창조주와 동료로부터 멀어지도록 분리시켰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주 금요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진리들을 올바로 깨닫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란다. 묵상해야 할 내용과 성구는 다음과 같다.

① 화목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 : 메시아
- 모든 인종과 언어를 가진 자가 메시아에게로 나아올 것이다(슥14:16, 사60:3)

②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마16;18)
-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갈3:29).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성도는 그의 지체이다 (고전12:12-17, 엡5:29-32)
-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요일3:14).
-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고후13;13, 빌2:1)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과 은혜를 더해줄 지체들과 곡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등1부 찬양대(지휘:이은경, 반주:김경희)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님의 얼굴 보라'
② 소프라노 오지명 :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갈보리'

목 · 장칼럼

사랑의 공동체

황 의 만 (장로, 유년부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이요, 사랑의 공동체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를 수반하기 때문에, 세속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다.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울고, 공의를 세우면 사랑이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는 완벽한 이중주이다.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형제들을 피차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큰 은혜일수록 감사치 못할 때가 많다.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명과 재능을 주시고 이를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신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과 재능도 다르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은사를 사모함이 중요하다. 공동체를 세우려면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피차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지체는 맡겨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우월감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소멸치 않고 역사하시도록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함이다. 사랑은 주는 것인 동시에 받는 것이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겸손과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어우러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교회 각 기관이 겸손과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성숙과 성장이 지속되기를 간구하며 진력하자.

Sermon for next week

YOU FOOL!

(Luke 12:16-21)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This is how it will be with anyone
who stores up thing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 God."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views. Some people strive for fame, fortune, and fancy in this life. Some people simply want wealth. Most people in this category are going after things that disappear, and have the potential to damage or destroy their spiritual journey. These people are fools! Why? Not because I say so, or because some older, wiser scholar says so, but because God says so! The Almighty, Master, and Maker of all creation tells us in today's bible passage that a person who is rich in the world, but not rich in Him, is a fool. Jesus revealed this truth in the form of a parable, a story that regards a rich man and how he poorly reasons with his abundance.

The rich man had a dream, and ambitious plan to achieve success. His goal was to store up his wealth, so that he could relax and take it easy for his remaining years of life. One notices in the story how he takes all glory for himself, never giving praise or thanks to God. Look at how he perceives his warehouse as his blessing,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v. 19). He confesses that he envies his goods for his happiness. His admission, like many people, is that he has worked hard, in an honorable and honest manner, for the things he has. As such, he deserves the rewards of his labor. So, why is that God calls this man a fool? If you don't hear God's voice, you, too, many start to look at Michael Jordan or someone in his category as a role model. You may begin to set a standard that is far away from God's plan. Jesus addressed this rich man as, "You fool!" Let's learn from "You fool" and avoid the negative liabilities of prosperity.

The rich man thought his worldly possessions were significant. His affluence was agricultural in nature, consisting of land that produced grain which needed to be stored in large barns. He felt, as many people feel today, that material things are very important. But all this belief is what makes a fool. Listen to what Jesus says,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v. 15). The rich man forgot this major principle. His faith was grounded in the world, not the Word. His lack of insight caused greed. No one can take their earthly possessions pass the grave. Everything before death is temporary and everything after death is eternal. You must keep close to your heart this truth!

The rich man absolutely valued self more than God. His safety was placed in the temporary, perishing ideals of this world. Listen to his thinking,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vv. 18 & 19). His retirement plan is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many people of today. The rich man didn't take into account that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One never knows when he/she will travel to the grave. God said to the rich man,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v. 20).

No fear of eternity leads to no preparation for eternity. The rich man was to die that very night. His future arrangements were for an earthly existence. He was making ready for something that was never to be. You and I know that our last days are coming, that God will be calling for our souls.

You cannot bargain on that day. At that time, most families bicker and war over the remains of material stuff. They now own your earthly possessions. The rich man didn't prepare for eternal things. He only harvested his earthly acts, but judgment follows. He didn't reap the blessings of the real harvest. Like the other rich man found in Luke 16:19-31, their acts lead to and deserve the reality and torments of hell.

No fear of eternity leads to no preparation for eternity. The rich man was to die that very night. His future arrangements were for an earthly existence. He was making ready for something that was never to be. You and I know that our last days are coming, that God will be calling for our souls. You cannot bargain on that day. At that time, most families bicker and war over the remains of material stuff. They now own your earthly possessions. The rich man didn't prepare for eternal things. He only harvested his earthly acts, but judgment follows. He didn't reap the blessings of the real harvest. Like the other rich man found in Luke 16:19-31, their acts lead to and deserve the reality and torments of hell.

My dear friends, if the last night comes to you,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time, in heaven or hell?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God says, "At the acceptable time I listened to you, and o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 Cor. 6:2). Prepare your heart. Come to the Lord and pray, Lord I am a sinner, help me to prepare my heart for eternity. I want to be your child. Forgive my sin through Your blood. Let me deny my sin and follow you. I want to b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so that I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You who has called me out of darkness into Your marvelous light' (see 1 Pet. 2:9). Lord, I want to be like that. I don't want to be a fool. I want to be Your possession. Amen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어리석은 자여!

(눅 12:16-21)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사람들은 제나름대로의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와 행운,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할 만한 삶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영적 순례의 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만 좌절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도 아니고, 어떤 경륜있는 학자가 그렇게 말해서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만 부자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어리석은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가 자신의 부유함을 얼마나 형편없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 안락을 추구하는 것

그 부자는 꿈이 있었고, 또 성공을 꽤 하는 야심에 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여유있게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자신은 영화롭게 하면서, 결코 하나님께는 찬양이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창고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19절). 그는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선호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 명예롭고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의 대가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마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서 마이클 조단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기준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로부터 배웁시다. 그리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쓸모 없는 의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것

이 부자는 그의 세속적인 소유물들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농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그의 부유함은 큰 창고에 보관해야 할 만큼 많은 곡식들을 소출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물질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15절). 부자는 이 중요한 원리를 잊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안목은 탐욕을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전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부자는 확실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안락은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도 썩어질 개념들에 위치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18,19절). 그의 은퇴 계획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부자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언제 무덤으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20절).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것

영원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영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바로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의 미래 계획은 세속적인 가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족들끼리 물건을 두고 언쟁하며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적으로만 살았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진정한 추수의 축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19-31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부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행위는 지옥의 현실과 고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 마땅합니다.

영원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영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바로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의 미래 계획은 세속적인 가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족들끼리 물건을 두고 언쟁하며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적으로만 살았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영원한 은혜로의 초청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마지막 밤이 온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나는 선택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벧전 2:9을 보십시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간다를 향한 마음

정 용 동 (우간다 단기선교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은 선택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기 그 14명이 갑니다. 황의만 장로님, 류병희 목사님, 조순림 권사님, 홍현기 집사님, 대학부 9명의 지체들, 고등부 1명, 총 14명의 대원들은 아프리카 우간다를 그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간다 땅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면서부터 왜 그리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는지요. 왜 그리도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힘들게 하였는지요.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간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곳 영혼들과 우리팀에게 베푸시고 싶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로 단련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팀원 모두는 이렇게 선택받아 훈련받고 어려운 상황인 것까지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4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우간다를 향한 마음은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해서 서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중보로 힘을 실어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된 팀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어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처음에 우간다는 헐벗음의 땅이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생각으로 그저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만 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벌거벗기고 가난한 성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음으로부터 헌신치 못하게 하고 주님에게 범죄케 하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빨리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그것만을 우간다 땅에 완전히 쏟아 붓고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우간다 단기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원들 모두 성령충만하도록
2.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도록.
3. 팀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도록
4. 오고가는 모든 일정(8월3일-16일)을 주장하셔서 안전하도록.
5. 대원들이 하나되도록

'하나님 나라' 가 확장되기를

정 성 국 (수단 단기선교팀)

전홍렬 장로를 단장으로 하여 김인식 목사외 17명은 8월3일 오후1시15분에 한국을 출발하여 8월4일 새벽4시30분에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 도착하게 된다. 이후 10일간의 사역을 한후 8월15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주요사역 내용은 여름성경학교 개최이다. 현재 수단에 나가있는 평신도 단기선교사들이 관리하는 교회는 총7개이며 이중 3개의 교회를 본팀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 교회의 이름은 자발울리아교회, 신자교회, 그리고 메라위교회이다. 이들 중 신자교회와 메라위교회는 베이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사막을 횡단할 때 신자교회는 6시간 거리이며, 메라위교회는 12시간거리의 교회이다. 본팀의 주요사역 내용이 여름성경학교 개최이니 만큼 사역내용이 성경학교에 맞춰져 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마임, 워십, 어린이 찬양 및 율동, 성인찬양, 말씀, 분반공부, 인형극이 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베냉공화국과 함께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정식 명칭은 '수단공화국' 이다. 영국 식민지 시대를 겪고 1953년에 독립하여 그해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민족간의 갈등 등으로 현재까지 내전의 휴유증을 앓고 있고 민족간 갈등이 최대의 사회문제이다. 수단인의 종교분포는 이슬람교가 64%, 기독교가 27%, 원시종교가 9%를 차지하나 이슬람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다. 이곳 메마른 수단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본 팀원들이 함께 기도한다.

9교구 농어촌전도를 다녀와서

정 옥 련 (집사, 9교구)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주사랑교회에 9교구 농어촌 전도대가 도착한 시간은 19일 낮1시였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농작물들은 지쳐 있었고 땅의 열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착예배때 정해성 목사님께서 고후4장 3절과 4절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전도'를 위해 말씀하셨다. 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두사람씩 짝을 지어 교회를 중심으로 주문진 전지역을 나누어 전도하러 갔다. 감자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게 복음을 전하다가 야단을 맞기도 하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들길을 저녁에 있을 전도초청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찾아 끝없이 걸어 얼굴이 빨갛게 익었지만 한사람이라도 더 천국잔치에 모시고 가야한다는 일념으로 맡겨진 곳을 열심히 다녔다.

주문진읍에 저층아파트가 있었는데 한동을 다 다녀도 만나는 사람은 할머니 두세명뿐이었다. 낮시간이어서인지 빈집이 많았고 더욱 더워서인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저녁집회 시간에 많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교회로 오는 좁은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초대받고 오시는 분들로 줄을 이었다. 작고 아담한 교회에 차고도 넘치도록 오셔서 발들일 틈이 없었다.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고 그곳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서 정성껏 대접했다.

이번 9교구 농어촌 전도대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갔는데 교구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지역장님들과 전도회장님들 머리끝에서 땀이 비처럼 흐르도록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역시 우리 충현교회에서 훈련받고 사명받은 천국일꾼들이라는 것과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시고 그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서초경찰서 전·의경 전도집회

어떤 한사람이 여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여비를 아끼기 위해 비행기보다 배를 이용하기로 작정한후 식비를 아끼기 위해 건빵과 마른 식료품, 칼로리 높은 초콜릿을 준비하여 여행길에 올랐답니다. 배안의 모든 사람들이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때 이여행객은 건빵으로 초콜릿으로 식사를 대신하였으나 며칠이 못되어서 식사를 하고 싶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는 주방장에게 가서 무슨일이든지 시키는대로 다 하겠으니 제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방장은 깜짝 놀라며 "아니? 그럼 여태까지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치른 배삯에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지난 22일 서초경찰서 전·의경 전도집회에서 요한복음 10장10절로 말씀을 선포하며 '풍성한 삶' 이라는 제목으로 정해성 목사님은 위의 여행객을 비유로 '이미 예비되어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초청을 하자 250명가량 모인 전·의경 중에 136명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으로 고백하며 결신하였다. 억수같이 퍼부은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교구 연합전도회원 10명과 4교구 장로님이 참석하여 자원해 준 서초경찰서 전·의경 전도집회는 행운권추첨시간이 있어서 20여명에게 조그만 상품이 주어지는 때마다 박수하며 한층화기 애애한 분위기 였읍니다. 한숙정(집사, 16교구)

무공무방(無功無防) 정신으로 영적 각성

김 영 훈 (목사, 고등부 지도)

"모이기를 힘쓰라" 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강남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시험기간이 되면 정말 '시험' 이 되어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수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믿는 부모들이 오히려 불신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머리로는 주님을 믿지만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몸따로 머리따로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1학기말 시험기간이 되기 전 학생들에게 '시험기간에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에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철저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도목사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사 혹은 학생?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가 '무공무방(無功無防)'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공격하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는다' 저는 이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면 더이상 무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분주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자주 내 자신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공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공무방의 정신으로 고등부에 임할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기대해 봅니다.

대학부 집회를 바라보며

류 병 희 (목사, 대학부 지도)

토요일 오후 3시30분에 제2 교육관 4층에서는 대학부의 집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충현교회 젊은이라면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재수생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부에 참여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 대학부의 집회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생긴 감동과 감사를 같은 충현교회의 젊은이들로서 서로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되니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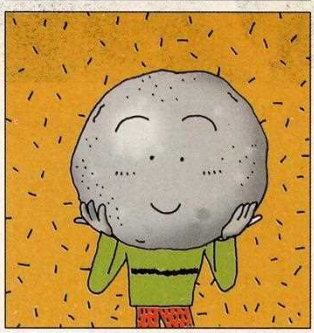
대학부 집회는 먼저 2시부터 팀 · 조장의 기도모임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과 말씀, 결단의 시간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광고시간에 멀티미디어팀의 신선한 광고가 더욱더 젊은이의 집회를 특색있게 합니다. 특히 집회시간에 오케스트라찬양대의 연주와 특송이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회가 은혜스러워졌고 대학부회원들이 점차적인 참여로 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복음을 깨달아 그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어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십자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헛된 세상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학부 집회는 모이고 교제하는 집회일 뿐 아니라 파송하는 집회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음의 삶, 또한 각종 사역과 단기 선교에 헌신한 일꾼들이 참으로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파송합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충현의 젊은이들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천국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평

글 · 그림 / 장 민(minj74@jaangminn.com)



하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의 말씀안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진,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을 사모하며

이 종 태 (전도사, 청년1부 부지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요일1:9)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이기 쉽습니다.

청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사회는 죄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을 아무 부담 없이 행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또한 죄가 보편화된 사회이기에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다들 피곤해하며 싫어해서 직장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무관심한 곳에서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는 복음이 진정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 부담만 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집회는 복음이 복음 되는 집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집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착한 행동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청년1부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는 30대 신앙 공동체

김 인 식 (목사, 청년2부 지도)

오전 10시10분! 지금 막 2부 예배를 드리고 교사 기도회에 모이는 청년 이상의 청년들이 서로 악수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예수 청년' '충현의 젊은 30대 신앙 공동체!'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모이는 청년2부의 모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찬양과 기도로 문을 열고 그날 가르칠 교수 내용(G, B, S; Group Bible Study)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시간은 젊은 교사들의 재충전 시간이다. 오후12시20분! 3부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면 이미 교육관 로비는 만나홀에서 늘어선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유아 · 유치실에서 자녀를 찾기 위해 가는 부모들, 1주일만에 만난 손자 손녀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고운 분들 그리고 천국과 더 가까워서 좋은 514호실 집회실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이곳 저곳에서 만나는 정겨운 형제 자매들을 만난다. 이미 집회실에서는 찬양 인도팀인 둘로스와 먼저 온 형제 자매들이 찬양소리가 오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집회실 앞에 서면 오는 이들마다 얼굴로 손잡아 주시는 신입 스태프 그리고 임원단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오후12시40분! 집회와 교회와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형제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집회는 시작된다. 요즈음 청년2부 강단은 작년부터 계속되어진 '사도행전 강해' 로 도전한다. 물론 도전의 초점은 바울 사도도, 역사 의식도 아닌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늘 그러했듯이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청년이 되기를 위해, 그리고 바울 자신의 능력과 웅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늘 사역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 구원 대상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진 30대가 되도록 도전한다. 오후1시30분! G, B, S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 시간이 되면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떡의 교제도 나누어진다. 예배를 드리고 미처 식사도 못한 채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간의 근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오후2시40분이 되면 모든 집회는 마쳐지고, 오후 3시에 있는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늘 복음과 십자가로 도전하는 담임목사님의 메시지에 굴복당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이들이 늘어가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제 이 더운 여름 청년2부의 젊은이들은 복음을 안고 서울역으로 중앙병원으로 강원도 정선 도전교회와 삼척 추동교회, 경주의 동방교회로 그리고 수단와 몽골로 단기선교로 떠나게 된다. 그저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30대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편만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간증과 나눔 (교구이야기)

나혼자 천국갈순 없잖아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박 윤 석 (권사, 8교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 먼자요, 귀먹은 자였으며, 죽은 자였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사 예수님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선 배길 수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지 서슴지 않고 구원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눈길로 반박할 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더욱 불쌍히 여겼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 영혼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했습니다. 때론 소금을 끼언짐을 당하고 한겨울에 물벼락을 맞고 갖은 욕설로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쓰러뜨릴 것 같아도 오히려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닫혀진 마음문이 열려지길 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도 누려야 하였기에 꼭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면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일과중엔 첫 새벽에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을 찾던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소망하는 것은 "나에게 전도의 대상을 붙혀주소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꼭 예비하시고 준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음을 수없이 만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곤 했습니다. 땅에 있는 소망은 잠시 있다가 끊어지지만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 길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세상 어느 귀한 것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서 주님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남기라고 하였듯이 정말 작고 미흡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모습 그대로 전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갈 각오로 한알의 밀알이 되어지길 준비된 모습으로 전도의 길에 오릅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시고 붙여주신 영혼을 만나기 위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인생의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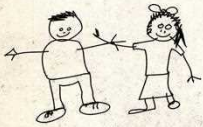
박 남 희 (집사, 4교구)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무언가 모르는 공허함 속에 삶의 황폐함을 느끼며 살았음을 고백한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성장하며 주님을 떠나 살았고 결혼을 계기로 다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렇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였다. 그러는 중에 나는 무엇보다 나자신의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며 밤에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나의 삶이 공허하다며 울며 하소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문제일뿐 그 어떠한것도 나에겐 해답과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믿음을 바로 가져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자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내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교만한 마음만 들었다. 그러던 중 어느 철야기도회에 참석하여 온몸과 마음을 주께 맡기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체험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절로 믿어졌다. 또한 주님만 생각하면 어디서나 눈물이 흘러졌다. 만물이 새롭게 느껴졌으며 모든 것이 귀하고 가치있게 느껴졌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언가 나의 마음에 안개같은 부연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거둬지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졌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의 좌표가 바뀌어진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린다.

따뜻한 이야기

작은 도둑



단기 선교팀에 합류한 후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지나갔다. 회사일에 단기선교 준비에 모두가 하나같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을테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웃음의 바다를 이루며 준비해나갔다. 파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답게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이었다. 그날도 여전히 이런 웃음바다였다. 그런데 아마도 사탄이 시기가 났나보다. 단기선교팀은 베다니홀에서 율동연습에 열중해 있었다. 땀과 웃음이 잘 어우러질 즈음 사무실에서 '후다닥' 소리가 났다. '지갑' 이라는 비명과 '잡어' 라는 외침, 분위기는 돌변했다. 모두들 각자의 가방을 확인했고 상당금액이 없어졌음이 밝혀졌다. 단기선교팀은 모두들 흩어져 범인을 찾아 나섰다. 연습과 웃음에 잘 어우러졌던 땀들이 분노와 의심이 땀으로 변했다. 범인이라고 확신되는 아이들이 잡혔다. 13살의 초등 여학생 2명. 우리는 그 아이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자백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너도 나도 언성을 높였다. 아이들은 완강히 시치미뗐다. 혹시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나쳤지만 확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그쳤다. 우리는 이미 성도의 모습이 아닌 보통 어른이 모습이었다.

문득 목사님이셨던 아버지 기억났다. 서재에 자꾸 도둑이 들자 도둑에게 편지를 써놓았던 아버지. 물론,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편지가 놓인 날 편지 외에 없어진 것이 없었다. 그뒤로 도둑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여 반성하고 있을 즈음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집이 가난해서 그랬어요." 그래 아이였다.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 아이였을 뿐이다.

우린 앞서 몇분간 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슈퍼에서 초콜릿을 훔치다 걸린 적이 있었다. 당시 어른들은 날 따뜻이도 감싸주었다. 그 뒤로 슈퍼 아저씨가 초콜릿을 하나 더 준 기억도 난다. 우린 무엇을 보였는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아이들을 안아 주었다. 다시 얼굴들이 밝아지며 화낸 것이 미안한 듯 먹을 것을 내주고 아이들의 아야기를 들어주었다. 불쌍한 아이들이었다. 계모, 구타, 왕따, 그리고 가출…어릴 적 슈퍼 아저씨처럼 아이들 손에 지폐를 쥐어주는 집사님도 계셨다. 이제 안심이다. 아이들은 단기선교팀에서 성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았으리라. 마지막을 아이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 주고는 아무일 없었던 듯 다시 연습에 열중했다. 부디, 잘 자라 주길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디… (권요셉 기자)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살아 오신 인생의 선배인 이종애씨와 따님인 이지은양. 예수믿고 은혜가 배어 있는 저와 담 하나사이로 늘 만나면서 반가운 인사로 삶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주고 받았죠. 잔잔한 호수에 평화로이 떠 있는 한마리의 학을 넌즈시 바라보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듯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가 동조되며 우리는 알게 되었죠. 늘 저의 마음속에 인류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만에 살아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에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입을 벌리게 하셨지요.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랑의 추억이 있고 그때 고난에 가파른 언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갑갑하며 애수를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얽힌하 죽을 수 밖에 없던 죄인이 새생명을 얻고 기쁘고 즐거워 현재의 고난을 잊고 성령안에서 평안의 줄로 매어 나를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종애씨에게도 확신있게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지난날 저 또한 그랬듯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 세상에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내하며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였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타성에 젖어 그 뜨겁던 예수님이 내마음에서 흐려지고 형식에 매여 믿음생활을 하였지요.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주님과 만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되돌아 회개할 때 주위에 사람에게 또 가까이에 있는 이웃 아는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입을 벌리게 하였죠. 이종애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에 가까운 교회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했죠. 내가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붙드는 예수님을 이종애씨와 따님인 지은양도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복음이 전해지는 충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양육되어져 가는 것을 볼때 이제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안심이 되는군요. 부활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있는 자녀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시켜 온가족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평강이 있으시길 늘 기도합니다.

1교구 김행자 집사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자!

김 삼 우 (중등1부)

지난 7월20일부터 22일까지 중등1부 여름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있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도전 골든벨, 미니올림픽, 특강, 천로역정, 부흥회, 만남의 시간, 산상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흥회, 천로역정, 특강, 산상기도회 시간이 가장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조철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부흥회 첫날 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는 제목으로 둘째날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셨다. 특히 우리가 마귀와 싸울때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특강 시간에는 사단의 실체와 사단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산상기도회 시간에는 원수 마귀 틈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정말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셨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고 폐회예배 때 우리 중등1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거듭나면서 모두가 병장이 되어서 나왔다. 처음 개회예배 드릴 때에 2등병에서 폐회예배때 병장까지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한걸음씩 영적 군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았다.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나를 바꾼 한마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남궁 양희 (청년1부, 73동기)

'교회에 다니는 것' 이 참 부질없어 보였던 때가 있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가 늦었던 나는 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에 많이 괴로워했다. 나의 모교회는 전북 김제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교회였는데 작은 동네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몇년째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인내가 고갈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또 다른 주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나를 돌아보았다. 역시 나는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그리고 한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후로도 우리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상기하면서 실망치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니까.

진리의 샘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기를 읽는다면, 아마 두 가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약 400여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기분이 나쁠 것이고, 반면에 수백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의 성장한 것과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볼까요?

우선, 출애굽기는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Exodus)로 '밖으로 나감'을 의미한답니다. 그야말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이지요. 얼마나 신날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구속' '자유'라는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읽으면 좋답니다. 1장-18장까지는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9장-24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율법으로!". 그리고 24장-4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것인가? 성막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예시하고 있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주제들뿐 아니라 유월절 어린양, 누룩, 모세의 노래, 독수리, 제사장,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예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구요!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는 모세의 간증과 같은 글이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을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일, 애굽 병사를 죽이는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일,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마음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출애굽기에 잘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던 말씀!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BC 1440년)으로 돌아가 모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사랑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언니를 만난건 대학교1학년때 같은 과에서였다. 언니는 직장에 다니다 학교를 들어왔고, 결혼까지 했었다. 그당시 나는 결혼까지 한 언니가 뭔가 다른 나라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언니는 대학교 3학년때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1학년이다.

양양에 사는 언니의 집을 지난 봄에 방문했었다. 어느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며 언니는 형부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형부는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언니는 늦게 시작한 학력고사 준비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다고 했다. 하루는 형부가 학원 앞에서 언니를 기다려 삼계탕을 사주더라는 것이다. 삼계탕을 그리 좋아하지 않은 언니는 별로 내키지 않아 싫은 소리를 해가며 억지로 먹었었는데 후에 형부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더운 여름 힘들게 공부하는 언니가 안쓰러워 아끼던 워크맨을 팔아서 언니에게 삼계탕을 사준거라는 것이다. 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형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에나 지금이나 형부의 사랑은 동일하며 언니는 작년에 또하나의 생명을 잉태하였다.

사랑은 희생이구나! 나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나의 생각으로 재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이다.

이 여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한다.

(편집실)

교회소식 / 새가족

알 림

1. 구제 헌금 안내
오늘 I 부- V 부예배시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방송실 카메라 봉사자(찬양예배) 한글 자막 통역 봉사자(찬양예배) 구함
충현교회 방송실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봉사할 카메라 봉사자와 한글자막통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 카메라 봉사자는 대학부 이상의 형제, 자매 (초보자 가능)
문의 : 552-8200(교환:224), 562-4872
3. 크로마하프 대원모집
하나님께 크로마하프로 찬양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 구자남 권사(514-6047)
김옥순 집사(548-6916)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 31일(월)새벽기도회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 1일(화)새벽기도회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3. 교구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장소 : 선교관 301호
4. 기획위원회 임시기획 회의
· 일시 : 오늘 16:00
· 장소 : 선교관 302호
5. 안수집사회 임원회
· 일시 : 2일(수) 새벽기도회후
· 장소 : 집사회실
6. 권사 전체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갈릴리홀
7. 권사 임원 전체월례회
· 일시 : 2일(수) 수요1부예배후
· 장소 :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한나 11지회 월례회
· 일시 : 8월13일(주일) 교구모임후
· 장소 : 베다니홀

별 세

1. 박창복 성도 (강인명 집사와 강인영 집사의 모친, 문현옥 집사의 시모, 13교구 연수1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례
2. 안용기 성도 (안옥실 권사의 부친, 15교구 신대방1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3. 최석진 성도 (최준호 집사의 부친, 석귀수 집사의 시부, 13교구 등촌구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4. 이도재 성도 (이호임 집사의 부친, 15교구 봉천2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주소 변경

1. 조영혜 집사
영동포구 당산동 3가 394번지 삼익APT 1동 602호
2. 이창업 장로, 김용섭 권사
강남구 역삼동 712-3 개나리 APT 34동 605호 ☎564-9978
3.정금연 집사, 이욱재
고양시 일산4동 1347-9
☎031-904-9949

◆ 8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8	6	임무천	김구형	원응철	차신득	안동현	김은철	유영회	유창순
	13	한송규	이 훈	엄필성	박인건	김환기	소재철	윤정식	문명애
	20	황의만	김영길	이창호	김광남	최대원	김문섭	은필례	이경자
	27	김춘권	최명환	이종석	전홍렬	김단용	이갑재장로	이경현	김영숙

충현 중보의 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서 능하게 쓰시는 말씀의 종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와 모든 교역자 및 당회원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소서.
③ 교회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되어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④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참여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⑤ 금년 여름에 실시될 단기선교와 농어촌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⑥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⑦ 5대 목표가 각 부서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게 하옵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06	김선옥	7	청년2부	이경자(7)
707	양석우	9	에바다부	김영일(9)
708	이현교	9	베드로	
709	이은옥	9	루디아	
710	박수일	13	에바다부	김영일(9)
711	한봉이	19	청년1부	
712	류경	19	대학부	
713	최지현	19	대학부	
714	김윤회	19	청년2부	
715	신혜경	19	청년2부	
716	허일순	19	청년2부	천은주(19)
717	이승순	19	청년2부	심효숙(2)
718	송민구	8	청년1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오시는길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한 정 미' 자매를 소개합니다

아주 어린시절 이모들손에 이끌리어 주일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다고 말하는 자매님은 6교구 양옥자 집사님과 같은 빌라에 살게 된 것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랍니다. 언젠가 빌라에 물이 들었는데 지하에 찬 물을 양집사님 부부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고 늘 즐겁고 웃는 얼굴과 편안한 심성으로 여러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을 편안케 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양집사님을 언니라고 호칭하며 교회다니면 언니같이 닮게 되고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 자진해서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청을 했답니다.

나중에야 자신을 위해 6년동안 기도한 것을 알게 되었노라며 언니 삶이 너무 아름다워 닮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하였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섬·기·는·분·들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조선근 기획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이병학 제3교육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제2교육위원장
엄필성 장년3부장	강모용 새가족부장	오정헌 예배위원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제1교육위원장	서동석 당회부서기	정운석 제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조인제 이멘찬양대장	김종구 유아부장	최무길 장년1부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창호 장년2부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전도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제5교구장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제17교구장	박인건 제13교구장	김인관 제6교구장	이병옥 제3교구장
안종욱 재정위원	최명환 제7교구장	임무천 고등부장	이종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최기홍 제11교구장	이갑재 제15교구장	진홍용 에바다부장	전홍렬 제9교구장
이정우 임마누엘찬양대장	김단용 중등1부장	황영일 제4교구장	손 철 영어교육부장
한송규 중등2부장	김춘권 청년1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대학부장
김환기 신혼가정부장	원웅철 중등3부장	이형수 초등부장	안동현 소년부장
황의만 유년부장	김구형 유치부장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전형준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 교육목사 염현일 정준회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이집트) 안석렬(수리남) 정은회(수단)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한승일
■ 여전도사
정연회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 교정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 m.	갈릴리홀(Galilee Hall)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